

호평 속에 강남구는 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론에 이어 실무까지, 전국 무대를 완벽하게 석권한 순간이었습니다.



에필로그: 강남이 만들면 표준이 된다

2025년 11월, 강남구는 일주일 간격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2관왕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하나는 치열한 연구를 통해 법제도의 발전을 이끈 지성(知性)의 결과였고, 다른 하나는 발로 뛰며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감성(感性)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상패는 강남구 세무 행정이 책상 위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구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세무 행정의 표준’이라는 자부심으로,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넓게 소통하는 행정을 이어갈 것입니다.